

[오피니언]

월/요/광/장

민혜숙



학교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를 가르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의 유형, 말하기 기법, 연설 등에 관심이 간다. 그래서 대화나 연설, 설득, 유머, 토론 등에 관한 글이나 영상물, 책 등을 자주 접하게 된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몸짓으로 하고 웃자립이나 친절도 중요한 대화의 요소라는 구절을 읽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눈에 확 띠는 문장이 있었다. “선물도 대화다! 선물이 대화라니?”였다.

‘선물도 대화’라는 구절이 약간 충격적이다. 선물이 대화라면 나는 과연 대화에 성공한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다. 아마도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에 가까울 것 같다. 그동안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을까? 주고 받은 선물은 또 무엇이었을까? 남에게 준 선물보다는 받은 선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선물을 줄 때 흐뭇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체면상 형편에 비

해 무리를 하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락가락했다. 몇몇 표정이 대화란 주장을 흔쾌히 동의했지만 ‘선물이 대화’라는 대목은 선뜻 동조하고 싶

선물도 대화다!?

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선물’이라는 말 뒤에 도사리고 있는 ‘뇌물’이란 그림자를 떼어놓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의 명확한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선물(膳物)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행위 또는 그 물건을 뜻한다. 선사(善賜)란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남에게 주는 선물이다. 반면 뇌물(賄物)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의미한다. 뇌물이란 상당한

고가의 선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면 선물, 어떤 의도를 가졌다며 뇌물이라 식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같이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단순 논리로 환원할 수 있겠는가.

언젠가 코고 탑스러운 복숭아를 선물 받은 적이 있다. 복숭아가 어찌나 맛있던지 혀자 먹기에는 아까웠다. 그래서 한동네에 살던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가 한마디로 거절 당하고 말았다. 선물을 받은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해도 막무내였다. 스승의 날, 아이의 손에 들려 보냈던 조그만 선물 꾸러미가 되돌아 왔을 때의 민망함이 다시 살아났다. 사회의 분위기가 험해지다 보니 가벼운 선물조차 뇌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뇌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횡행해온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렇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한가위가 다가왔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대목을 맞아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고 당달아 택배 어저씨의 발걸음도 비쁘다. 때가 되었으니 의례적으로 하는 선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존경과 사랑, 관심 등을 담아 정성으로 선물을 보낸다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는 대화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선물은 액수에 상관없이 평상시 말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고,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분들에게 예를 갖추는 일이다. 무엇보다 가까운 가족에게,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일이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대화가 된다. 진정 그렇다면 선물은 대화, 사랑의 대화가 된다. (소설가·호남신학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박상수



초·중·고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친구와 다뤄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사람과 그리 좋지 않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다른 후 두 사람간의 화해 여부와 관련이 있다.

나의 경우 친구와 다른 후 선생님 또는 같은 또래 친구들의 권유로 화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화해를 제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마 어린 마음에 머uada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일단 화해를 하고 나면 마치 다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서로 웃고 지

설명을 해 주자 피의자는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그 다음날 바로 학의를 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적이 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사건의 궁극적 해결점은 피의자의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화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신의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와 학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화해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된다. 결국 당사자 모두 만족을 보는 일거득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화해의 향기

벗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화해는 분쟁과 마음의 분노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 검찰에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도와주기 위하여 화해중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유럽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과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

주로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와 명예훼손, 모욕 등 개인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이 그 대상인데, 이는 형벌을 통한 징벌보다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미

국·유럽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과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7년 도에 152건의 화해중재 회부사건 중 77건에 대하여 화해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는 처벌보다는 화해의 기회를 한 번 더 줄으로써 당사자들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린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수를 청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화해하고 전처럼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린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수를 청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화해하고 전처럼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린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수를 청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화해하고 전처럼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린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수를 청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화해하고 전처럼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린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수를 청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화해하고 전처럼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린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수를 청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화해하고 전처럼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린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수를 청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화해하고 전처럼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린 친구가 선생님께 꾸중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수를 청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화해하고 전처럼 허울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와

임상 실험 등으로 탈모제품 효능 입증한 뒤 판매해야

장애와 불편을 준다.

그러면서 지금은 탈모를 방지한다는 삼푸나 저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탈모 남성들은 그 제품들의 성능이나 효능을 모르는 채 오로지 제품 광고에만 의존해 사용하고 있다.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제조회사가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만 제시하고 있다. 또 한방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조차 되어있지 않다. 거기에다가 탈모 제품은 매우 비싸다.

이 같은 탈모방지 제품 사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탈모 인구 1천만명에 시장규모 1조원대에 걸맞는 정책적인 기준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최근에 그 직원이 필자한데 공개한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층의 탈모 일반인들이 기피할 정도로 사회적인

장애와 불편을 준다. 그래서 지금은 탈모를 방지한다는 삼푸나 저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탈모 남성들은 그 제품들의 성능이나 효능을 모르는 채 오로지 제품 광고에만 의존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탈모방지 제품 사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탈모 인구 1천만명에 시장규모 1조원대에 걸맞는 정책적인 기준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간이나 공휴일에는 환자가 급하게 꽉

의약분업 단점 보완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진통제·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공휴일이나 늦은 밤시간에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면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는다. 이럴 때 급하게 복용해야 할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간이나 공휴일에는 환자가 급하게 꽉

필요로 하는 즉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약의 경우 전문의약품이라고도 약국에서 판매했으면 한다. 병원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의사처방에 의해 복용한 기준 약과 동일하게 2~3일분 정도는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를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전날 받은 처방전을 이미 약국에 제출했으므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한 다음 약을 주면 될 것이다. 현 의약분업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김원준·광주시 산간구 삼거동

[시설]

정부 '광주비엔날레 적극 지원' 기대 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비엔날레와 관련,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지난 5일 개막식에 참석한 유 장관은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 비엔날레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앞날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유 장관의 발언이 인사말 차원의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비엔날레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실무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 장관은 “검토단계라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건은 성숙돼 있다. 21세기 들어 현대미술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권 비엔날레의 선두 주자다. 이번 비엔날레에도 르몽드와 아사히를 비롯한 유수의 해외언론 30여개 사가 취재에 나서 높아진 위상을 반영했다.

정부는 지원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 비엔날레로 육성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광주시 및 비엔날레재단과의 실무 협의도 중요하다.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인의 미술축제로 우뚝 설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기대한다.

정부 '지방비리' 구조적 문제까지 접근해야

구의회 의장은 의장선거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고소되었고, 민선 4기 들어 기초단체장 2명이 이미 뇌물수수 등 비리에 얹혀 물려났고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기초·광역의원들의 비리도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권력형 및 토착비리는 뿐만 아니라 거리에 있다. 비리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직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청와대가 나선 것도 권력형 비리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정부가 '지방'에 과도하게 개입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스스로 부른 측면이 크다.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시장과 군수,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도 예외일 수 없다. 광주 북

無等鼓

임진왜란 당시 조선 군이 유독 해상에서만 대승을 거둔 이유는 뭘까. 충무공 이순신의 뛰어난 지략 때문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또 다른 이유로는 조선 수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북선과 판도선, 즉 전함의 전략적 우위였다.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인 거북선과 판도선은 왜선에 비해 속도와 기동성이 뛰어났다. 사정관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능할 수 없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정부가 '지방'에 과도하게 개입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스스로 부른 측면이 크다.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시장과 군수,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북선의 전공과 실체에 대해 학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거북선이 고유의 발명품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고(故) 정주영 회장은 현대조선의 선박 수주를 위해 세계를 돌면서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 주었다고 한다.

“대영제국보다 한국의 조선기술이 300년 앞섰다”며 거북선 세일즈를 한 것이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건조된 거북선 모양의 유람선이 이달 말 독도로 시험 운항을 한다. 옛 거북선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지만 일본을 향한 400여년만의 거북선 해상 시위인 셈이다.

전남도의 차이도 있다. 일본 수군의 공

의 조선기술이 300년 앞섰다”며 거북선 세일즈를 한 것이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건조된 거북선 모양의 유람선이 이달 말 독도로 시험 운항을 한다. 옛 거북선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지만 일본을 향한 400여년만의 거북선 해상 시위인 셈이다.

전남도의 차이도 있다. 일본 수군의 공